癌캠페인

癌患者가 늘고있다 그 予防과 治療대책

◆…이러한 자궁암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에서 발생하는악…◆
◆…성종양인 자궁경부암이 과거로부터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난소암이라고 할 수 있고…◆
◆…구미제국에서 흔한 자궁내막암의 빈도는 극히 적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 우리나…◆
◆…라와 동남아제국에서 흔한 융모성질환을 들수가있다. 국내통계에의하면 우리나라에서자…◆
◆…궁 경부암과 난소암 (또는 자궁내막암) 환자의 비율은 10 : 1이상으로서 절대적으로자…◆
◆…궁경부암의 빈도가 높음을 볼수 있으며, 융모성 분만예중의 1례로서 구미 각국에서…◆
◆…보고하는 예보다 월등히 높은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자궁 경부암과 융모성…◆
◆…질환은 비교적 저소득층이 사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근…◆
◆…자에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놀랄만큼 발전하고 의식주 생활의 향상에 따…◆
◆…라서 이러한 자궁암발생에도 선진국형의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흥미로운사…◆
◆…실이다. …◆

여성 성기에서발…◆
생하는 자궁암은한…◆
국 여성에서 발생…◆
하는 악성종양중수…◆
위를 차지할뿐 아…◆
니라 사회경제적여…◆
건의 향상에따라발…◆
생률로 보아서는오…◆
히려 증가하고 있…◆
는것같은 느낌이다.…◆

南宮成銀
〈가톨릭醫大 產婦人科學교실〉

子宮癌

서 가장 흔한 자궁경부암의경우에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발견 될수있기에 이러한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다는 것은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없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향상과 국민소득이 점차 높아지는 현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인 자궁 경부암에 대한「스크린닝 시스템」이 조직되고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집단검진 조직은Finland나 카나다의British—Columbia에서 시행되어서 자궁경부암의 빈도를 현저하게 감소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각지역의 모병원을 중심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뿐아니라 일반의사에게도 연결될수있는 전국적으로서 이의 전국적인 보급에 의한 자궁경부암의 조기진단률에 상당한 향상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면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1984년11월 대한질확대경학회를 창립하여서 질확대경의 전국적인 보급에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질확대경의 하나인 미국Wisconsin 대학의 Stafl 교수가 고안한 Cervicography의 보급을 들수있다.

최근考案된 Cervicography로간편하게診斷

全国的 膣확대경(colposcopy)보급및 教育강화 必要

미국 NCI (국립암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는1960년대 후반기부터 자궁 경부암의 빈도가 감소함에 비하여 자궁내막암이나 난소암의 빈도가높아져서 현재는 자궁 경부암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보고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현상은 1983년도부터 필자교실의 종양부에서는 점차 느끼고있는 것으로써 특히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의 발생이 서서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점차로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같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암치료의 지름길은 조기발견에 있다고 할수있다. 특히 한국여성에인 전달체계인 집단검진조직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할수있다.

이러한 집단검진에 사용되는 것은 주로 세포진 (Cytology)검사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으로 이러한전문적인Cytologist의 양성이필요하리라고 생각되며, 구미제국에서 최근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콤퓨터화된 세포진검사시스템의 도입도 고려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외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는 질확대경 (Colposcopy)의 보급및 교육이라고 할수있다. 이 질확대경은 세포진 검사와 함께 자궁 경부암의 발견을 위하여서는 필수적인 것 질확대경은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수년간의 수련이 필요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이에 숙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하여 Cervicography는 일반의사나 기사면누구던지 X—선과같이 촬영하여 Colposcopist 에게 보내어해석을 받게하는 것으로서 자궁경부암의 조기검진에 세포진검사와 아울러 가장 각광을 받을수 있는 미래의 검사방법중의 하나가 될것으로 생각한다.

또 자궁경부암의 원인인자로서는 바이러스 (HSV—Ⅱ, HPV) 설과 정자설등이 있으나 이중 바이러스설이 더 유력하다. 따라서 자궁경부암의 예방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미래엔 이러한HSV—Ⅱ나HPⅤ바이러스에대한 Vaccin이 개발되고 또 이를 사춘기전의 여아들에게 시행함으로써 자궁경부암의 예방도 가능해지지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있다.

난소암의 문제점은 본인이자각증상이 늦게 나타나기에 조기진단이 어려운 점이다. 물론 현재에서도Ultrasonogram, pelvic C—T, fine needle biopsy등등의 여러가지 최신의 방법들이 있으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난소암의 조기진단을 위하여서는 전세계적으로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고있으나 현재 가장 각광을받고있는것이 hybridoma 방법을 이용한 난소암의 특이 항원에 대한monoclonal ab의 개발이다. 일부의 상품화된 난소암에 대한 monoclonal ab가 나와있기는 하나 감수성이나 특이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더욱 개량된 monoclonal ab가 출현되면 일종의 종양표지물질 (tumor marker)의 관점에서 볼때 난소암의 진단과 아울러 치료및 예후판정에 더욱 커다란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최근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자궁 내막암은 자궁경부암의검사시에 40세이상의 고위험 부인에게서는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것으로서 이러한 자궁내막에대한 세포진검사에는프라스틱제의 여러가지 기구들이 도입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이러한 고위험 여성들에게는Z—Washing 이나 자궁내막생검을 자유롭게 시행하여야할 시기가 왔다고 보며 과거의 단순자궁 절제술에의한 치료의개념을 벗어나 조직병리검사를비롯한 pretreatment evaluation을 정확하게 함으로써치료방침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또 estrogen및progesterone receptor assay가 보편화되어서 수술후의 보조요법 선정에 정확을 기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은 융모성종양시 전이된 종양의 부위를 확인할 수있는immunoscintilation 방법의 개발, 기타 자궁암환자의 수술및 방사선치료후 예후및 재발의조기발견을 위한 tumor marker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적극적인『스크리닝시스템』組織 집단癌檢診사업 確立절실

어떻게 管理하면 좋은가

에스트로겐등 receptor assay 보편화 手術後의 補助療法선정에 愼重기해야

海外情報

뚱뚱보 死亡率높다

美국립保健院研究보고

몸무게가 자신의 표준체중보다 1파운드 (4백53g) 씩 늘어날때마다사망률은 2%가 증가한다고 하다

따라서 표준체중보다10파운드 (약4.5kg) 나 더 비대한 사람의 경우 사망률은 표준체중을 가진 사람들보다 20%나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조사는 美국립보건원 (NIH) 이지난 2월 개최한 비만에 관한 한 연구모임에서밝혀졌다고 종합과학지 사이언스 다이제스트가 전했다.

이 모임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프라밍햄 심장연구소 소장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는 지난 26년간의 연구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말했다.

카스텔리 박사는 비만한 사람은 발병률이나사망률에 있어서 그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모임에 참석한 일단의 비만관계 전문의학자들과 보건관리들도 표준체중 (이상적인체중) 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몇가지 종류의 암발병위험률이 높다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비만으로 인한 질병위험은 표준체중보다 5내지 10파운드 정도 더무거운 사람에게도 영향을미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만이라고 할때는 민족에 따라 각기 달리 산출되는 표준체중치보다 20%이상을능가할 때를 말한다.

20%이상 비만한 사람들은 비록 아무런 병이 없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비만자의 발병위험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혈압의 경우 정상인보다 발병률이 평균3배나 높으며 특히 20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층에서는5, 6배나 더 높다는것.

癌 심장 糖尿病잘걸려

標準体重5kg 초과 사망률20%씩增加

담배 많이피우면 癌걸린다

日本國立癌센터研究팀發癌要因밝혀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원인이 日本의 암전문가들에 의해규명됐다.

뉴 사이언티스트誌에따르면 日本국립암센터 (東京소재) 연구진들은 담배 피울때의 연기가 목구멍 폐등의 세포속에 있는유전물질인 DNA를 파괴하여 암을 유발케 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고한다.

DNA섬유질파괴로誘發

이 전문가들은 실험을 통해 한개비의 담배는인체세포속의 DNA에 있는 단일섬유 약1만개를 파괴하며 이런 파괴활동이 장기간 반복될때 파괴된 세포섬유들이 축적되어 암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日本암전문가들은 담배연기로 DNA의 섬유질이 파괴되나 상당수는자연회복되고 일부만이 원상복구되지 않아 담배를 많이 장기적으로 피우는 골초들의 경우 복구되지 않은 DNA의 섬유질이 축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담배연기가 DNA의 섬유질을 파괴하여 암을 일으킨다는 日本 암전문가들의 연구결과는 흡연의 발암이유를 설명하는 전혀 색다른학설이라고 뉴 사이언티스트誌는 덧붙였다.